

대행 스님

여기저기다 착을 두지 말고 무조건 자기가 하는 일 자기한테 다 맡기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우리는 작위(作爲) 없는 바로 자유인이 돼야 하는 거죠. 어떠한 집착을 한다면 그냥 가차 없이 허용치 않는다는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자기가 뭐, 이런 거는 잘못했으니깐 내가 이거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자유스럽겠습니까. 좀 해 보세요, 어떤가. 뜨거운 물이다 찬물이다 내가 말할 수는 없으니깐요. 먹어 봐야 알죠?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의 떡과 유의 떡을 한데 껴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거와, 유의 떡도 착이 끼어 가지고 요것은 요렇게 먹고 조건 조렇게 먹고 하며 그것도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죠.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할까요? 허허허.

이거를 잘 듣고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그대로 듣고 보는 그 자체가 그대로 여여함이다,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은 그냥들 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들 사는 거와 함이 없이 살림을 하는 거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여기저기다가 착을 두지 말고 무조건 못났든 잘났든 자길 믿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기한테 그냥 다 맡기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 없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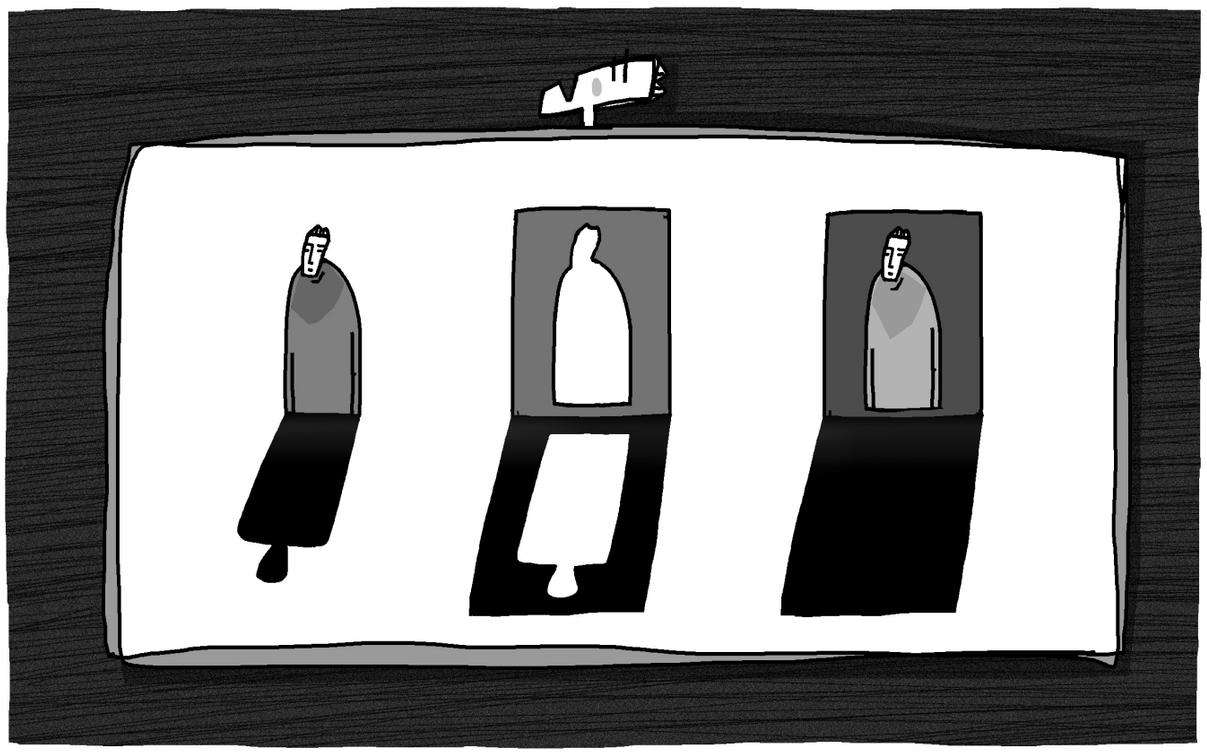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스님이 가르쳐 주신 도리와 스님이 애끓게 가르치신 그 고마움을 늘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가르치신 도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앞에 나왔습니다.

이 도리에 접하기 전에 저는, 남들은 겉으로 편안하게 보인다고들 했지만 제 속으로는 적과 동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려서 상대와 부딪쳤을 때는 물론이고 저 혼자 있을 때도 늘 속으로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 현재는 제 마음속에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을 묻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럽고 깨끗하고 이걸 너무나 또 잘 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넘어 볼까 하고 곰탕 국물에 바퀴벌레가 녹아 있어도 그것만 건져 내고 먹어 봤고, 똥파리가 빠져서 뱅뱅 돌아도 그걸 건져 내고 먹어 봤습니다. 그전에는 밥 위에 파리가 조금만 앉았다 가도 몇 숟가락을 덜어 내야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수행을 해 가면서 제 자신이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욕심이 많아서인지 어느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언제까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관둬 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 법문을 받자옵고 더 질문을 드릴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앞에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이 공부를 해 가면서 '잘해야 되겠다, 빨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다 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걸 놓으면서도 나름대로 한편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욕심이 있고 없고 간에 자기 분수대로 자기가 능력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겠죠. 지금 자기 능력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대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인공, 자기한테 되놓는 겁니다.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한테 그냥 다 놓듯이, 현재 자기와 과거 자기가 둘이 아니게 바로 삼심이 일심으로 공했으니까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가는 거 자기한테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자체, 자기가 공했으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놓고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대로 '네가 하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너만이 잘못된 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고, 너만이 건강하게 이끌 수가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자기가 화목을 도모해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인공을 얍삽하게 보진 마십시오, 포괄적인 자기니까요.

질문자1(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맡겨 놓고 관하여 보는 그 수행에 있어서 어떤 대목에서 스님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관하는 것을 몸부림치듯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둘을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아이,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몸부림 안 치게 생겼나? 아휴! '네놈으로 인해서, 네놈으로 해서 이게 전부 저질러진 일인데 네놈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네놈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뭐, 딴 놈이 거기 개재하는 게 아니니깐요. 과거에도 그놈이 살았고 현재에도 그놈이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놈이, 그놈이 지금 모두 하고 가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부처님더러 요놈 조놈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하하. 제 놈이 한 거니까 제 놈한테다가 모든 걸 맡겨라. 요거 작업부터 해야만이 정말 신성한, 청정한 부처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안 해 놓고 밥을 먹어서 배부르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다 씻어서 밥을 해서 다 해 놓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 떠먹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떠먹을 때 맛을 알죠. 이건 해 놓지도 않고 먹으려고만 한다면 어찌 그게 먹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살아생전에 어차피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한번 선의 칼을 뺀 거와 같이 생각하시고 절대로 그냥 길 수는 없다고 모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네가 일을 저질러서 전부 요렇게 살게 만들어 놓고, 또 네가 그렇게 진화시켜서 이렇게 인간으로도 형성시킨 거는 감사하지만 물주머니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선 그냥 그저 제 놈한테다 제가 한 일 다 놓으세요. 그런데 안 놔진다고 그러죠? 사회에 나가서는 뭐 어떠니 저떠니 하고 안 놔진다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소릴 들었는데 안 놔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대로 해 나가라는 거지,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따지고 살랍니까? 회답이 아주 말끔하게 씻어지진 않았지만 공부한 것도 말끔히 씻어져서 공부가 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잘 해 보신다면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잘될 겁니다, 하하하.

☞ 22면으로 계속

